

4도화성·2도화성·한국화성의 화음표기법의 체계화

나 운 영

1956년부터 1969년까지 『화성학』·『대위법』·『음악형식론』·『작곡법』·『관현악법』 등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판했던 것을 수정·증보하여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세광음악출판사에서 『음악이론총서(전10권)』를 다시 출판하는 동안 나는 많은 고심을 했었다.

특히 『현대화성론』을 출판함에 있어서는 1949년 조판 중 6·25사변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지도 못하고 말았던 『화성학』의 「제25장 근대화의 개설」을 쓸 때부터 언젠가는 현대화성론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, 30년이 넘은 1982에 서야 이 책을 내놓게 된 데에는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.

즉 세계 각국의 현대화성론 책을 모조리 구해 봐도 체계가 세워진 것이 별로 없고, 심지어 4도화성·2도화성에 대한 화음표기법조차도 개발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, 한편 현대화성은 무조음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성음악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-그렇다면 고전화성학과 마찬가지로 화음의 분류·종류·위치·선율화성법·비화성음·변화화음·전조 등등의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.

참고 삼아 이 책의 차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.

- 제1강 3도화성
- 제2강 부가화음
- 제3강 병행법과 투영법
- 제4강 4도화성
- 제5강 2도화성
- 제6강 복합화음
- 제7강 복조화음
- 제8강 기타화성
- 제9강 12음열 화성
- 제10강 한국화성

그런데, 특히 제10강을 쓰는데 있어서 나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만 했다. 즉 1961년에 발표했던 논문 「한국적 선율의 화성화에 관한 시론」과 1982년 초에 발표했던 논문 「한국적 선율의 화성화에 관한 고찰」을 토대로 삼아 드디어 <한국화성>을 더욱 체계화한-그야말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때문이다.

일반적으로 현대화성에 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는 듯 하다. 즉 「현대화성과 고전화성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」라는 관념이 첫째요, 「현대화성과 한국화성도 전혀 별개의 것이다」라는 관념이 둘째인데 이 두가지 오해를 우선 청산해 버리는 데서부터 현대화성은 시작된다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.

끝으로 『현대화성론』은 현대음악에 관심을 가진 작곡학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연주가 지망생·음악교육자·음악애호가 등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재강조하는 바이며 아울러 - 어디까지나 나의 창안에 속하는 4도화성·2도화성·한국화성의 <화음표기법>이 온세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랄 뿐이다. 『음악이론총서』의 총결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나의 『현대화성론』의 필독(必讀)을 권한다.

<1989. 4. 월간 음악교육>